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1월 1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17.(수) 18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1. 17.(수)	담당부서	소재부품장비총괄과
담당과장	정석진 과장(044-203-4910)	담 당 자	임경섭 사무관(044-203-4917) 민현지 서기관(044-203-4913) 염동현 사무관(044-203-4916)

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

- **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역량 결집, 'GVC 특별위' 출범**
- **미래 공급망 선점 본격 착수, 미래선도품목 R&D 실행방안 확정**
- **진정한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「제조장비 개발 로드맵」 마련**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는 **11.17일(수) 16시 정부서울청사**에서 **「제8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」**를 개최하여 **총 5건의 안건을 논의·확정**하였다고 밝혔음

< 제8차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개요 >

- (일시/장소) '21.11.17(수) 16:00~17:30 / 정부서울청사
- (참석) 경제부총리(위원장) 산업부 장관(부위원장), 관계부처 장관, 민간위원
- (안건) ① 기업간 협력사업(모델) 승인에 관한 건
  ② 소재·부품·장비 미래 선도형 R&D 추진방안
  ③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
  ④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
  ⑤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

□ 금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**소부장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과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**하였음

❶ **소부장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, 수급난 해소를 위한 차량용반도체** 등에 대한 **수요-공급기업간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**을 논의함

❷ 또한, **글로벌 특허분쟁 위험이 지속 증가**하고, **제조장비가 국가간 전략무기화 되는 상황**에서 우리 **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**이 심도 깊게 논의됨

❸ 아울러, 금번 **요소수 사태**를 계기로 **공급망 이슈가 기존의 하이테크 핵심품목 위주**에서 **해외 의존도가 높은 광물 등 원소재,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범용품목**까지 더 넓어진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,

– 향후, **민간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공급망을 더 촘촘히 점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힘을 합치기로 결정**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**“안전한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망 구축**에 대한 **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”**이라고 평가하고,

○ **“범부처 차원**에서 원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**국민생활에 필수적이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**의 **공급망을 면밀히 검토**하고, **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**하는 등 **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힘**

□ 이번 회의에서 **논의·확정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**과 같음

◇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수립

□ 시스템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 등 **Big3 산업과 나노 분야 첨단 장비 공급망 강화**를 위한 **“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”가 마련**됨

○ 이번 로드맵은 미국, 유럽, 일본 등 **선진국에 첨단장비를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**하고자, **향후 신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제조장비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**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

□ 로드맵은 **신산업별 전문가, 장비 수요·공급 기업 등 총 70여명**으로 구성된 "**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협의체***"**를 통해 수립**했으며,

* 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성

○ **'22년부터 '30년까지 9년간 총 31개의 핵심장비를 개발**하고, **개발된 장비가 조속히 상용화** 되도록 **R&D부터 실증**까지 전주기 지원함

□ 분야별로 **제조장비 개발 로드맵**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❶ **시스템반도체** 분야는 향후 기술발전 방향을 고려하여, **초미세화 선폭 기술 구현**이 필요한 **전공정**, 반도체 **수율 향상과 소형화**를 위한 **후공정**(패키징·검사)에 필요한 장비 **총 11개를 개발할 계획**

* 대표장비 : (전) 건식 원자층 식각·증착 장비 (후) 신공정 본딩 및 다이싱 장비

❷ **미래차** 분야는 **전기·수소 구동 플랫폼** 기반의 **자율차 시장 확대**를 고려하여, **수소차·전기차의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부품 제조장비**와 국내 기반이 취약한 **자율차 고정밀 인지센서 장비 총 8개를 개발**

* 대표장비 : (수) 수소압력용기 대량생산 장비 (전) 전고체 전지용 셀 제조 장비 (자) 차세대 Lidar 정렬 장비

❸ **바이오** 분야는 **의약품 제조 필수공정**인 **배양·정제·제품화** 공정용 장비 **총 7개를 개발할 계획**

* 대표장비 : (배)다용도 바이오리액터 (정)대량생산 크로마토그래피 (제)전자동 무균충전기

❹ **나노** 분야는 **성장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산업**과 **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·디스플레이 산업**에 활용될 장비 **총 5개를 개발**할 계획

* 대표장비 : (소재)나노입자 균질분산 장비 (분석) 3차원 원자힘 현미경

□ 정부는 **급변하는 기술변화를 반영**하기 위해, 앞으로도 **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협의체**를 지속 운영하여 **격년마다 로드맵을 재설계**할 예정임

◇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마련

□ 한편,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**특허분쟁 위험이 증가**하는 가운데,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'**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**'도 마련됨

○ 특허분쟁은 **장기간 진행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***되는 데 반해, **중소기업**은 대부분 작고 영세하여 **개별 기업차원에서 특허분쟁을 대응하기 어려워,**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**지원이 절실한 상황**임

* 특허소송(1심) 기간/비용('18, WIPO) : (美) 18~42개월/11.5~69억원, (韓) 10~18개월/1.7~4.6억원

□ 정부는 중소기업이 특허분쟁 대응을 돕고자 **아래와 같이 지원**할 예정임

❶ **(예방·대비)** 특허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·대비하기 위해 **특허기반 연구개발**(IP-R&D)을 기존 '소부장' 분야에서 **'BIG3·백신' 등 핵심 기술 분야로 확대**하고, **특허·영업비밀을 활용한 기술보호를 강화**하며, 내년부터는 **분쟁위험 경보 및 조기진단 서비스도 제공**

❷ **(분쟁 지원) 특허분쟁 대응전략 비용 지원한도를 2배까지 상향***하고, 지식재산공제 외에 **긴급경영안정자금**(중기부, 최대 10억원), **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등 분쟁비용 지원수단을 확충**

* ('21) 연간 1억원(3년간 3억원 한도 → ('22) 연간 2억원(3년간 6억원) 한도

❸ **(기반 강화) 특허분쟁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**하고, 연구자 및 기업 CEO 대상 **분쟁예방·대응 교육을 강화**하며, 스타트업부터 중소·중견기업까지 **지식재산 종합 서비스*도 확대**할 계획

* 국내외 지식재산 획득, 선행기술 조사·분석, 지식재산 가치평가, 분쟁대응 컨설팅 등

◇ 소부장 미래 선도형 R&D 추진방안 확정

□ 정부는 또한, **미래 공급망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**하고, **핵심품목 공급망 선점**에 본격 착수하고자, '**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R&D 추진방안**'을 확정함

○ 그간 정부는 ‘**추격**’에서 벗어나 ‘**자립과 선도**’로 전환하는 소부장 R&D **정책**을 추진해 온 바,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됨

□ 이번 실행방안은 ‘**선제적인 선도형 R&D 지원**으로 **소재·부품·장비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강화**’라는 비전 아래, 5개 추진과제를 설정함

❶ **65대 미래선도품목*** 중심 **기술난제 극복**을 위해 소재분야 **미래기술 연구실****을 **매년 20개 내외로 신규 선정**하여, **’25년 100개까지 확대**

* 현재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**미래 공급망 선점**을 목표로 **65개 R&D 품목 발표**('21.5)

** ‘기술난제’ 과제를 제시하고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방법을 제안 ⇨ 기술난제 창의적 해결

❷ 185개 소부장 R&D 핵심품목의 **미래 지향적인 기술 자립**을 위해 **미래선도품목과의 공통 요소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**하고, **탄소중립, GVC 재편, 디지털 전환** 등과 연관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

* 국가핵심소재연구단 매년 10~15개 신규 선정, ’25년까지 100개로 확대함

❸ **소부장 연구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**를 위해 신소재 개발 과정에 **지능형 로봇을 활용**하여 **최소 연구인력**으로 **R&D의 기간과 비용을 기존 대비 50%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**하는 신규사업을 추진

❹ 극한소재 One-Stop **실증기반 조성**을 위한 ‘**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,**’ 과기부-산업부 공동으로 **원천기술 R&D 성과의 사업화**를 지원하는 ‘**나노융합 2030**’ 등의 신규 예타 사업을 추진

❺ **소·부·장 미래분야 중심** 지속적인 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하고 관련 **R&D 커뮤니티를 활성화**하기 위해 **전문가협의체를 구성·운영**

□ 정부는 **그간 주력산업 분야를 우선 고려**한 정부 R&D에서 나아가, **주력분야와 미래분야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확대**해 나갈 예정임

◇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

□ 또한, **전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** 및 **위기 요인에 대한 심층 검토**를 위해,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위 산하에 **민간 전문가로 구성**된 **「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」*를 신설**함

*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, 총 15인으로 구성

○ 특별위는 산업정책 분야 **대표적인 국책·민간 씽크탱크 전문가**, **주요 업종 및 지역 전문가**로 구성되어,

○ **①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전략 및 ②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심층 검토**하고 **경쟁력위에 자문·보고**함으로서 **정부의 공급망 정책 수립을 지원해나갈 계획**임

◇ 수요-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11건 승인

□ 금번 경쟁력위에서는 **11건의 수요-공급기업 간 협력모델** 사업을 승인, **신규로 추진할 계획**임

* 협력모델 : 소부장 특별법(제49~50조)에 따라 시급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-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승인하여 R&D, 세제, 금융 등 패키지 지원(~21.5, 34건)

□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은 **소부장 특화단지** 관련 **5건, 차량용반도체 2건, 상생모델 4건**으로 과거 對日 공급망 우려품목 대응에서 나아가, **對세계 경쟁력** 확보를 위한 **핵심품목 중심**으로 선정하였음

○ 소부장 특화단지* 협력모델은 **①반도체 첨단 증착장비, ②이차전지 전해액첨가제, ③디스플레이 TFT 소재, ④고강도 탄소섬유, ⑤공작기계용 경량소재**로 각 특화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**대표 협력모델을 선정**하였으며,

* 소부장 특화단지 현황(총 5개) : 반도체 - 경기 용인, 이차전지 - 충북 청주, 디스플레이 - 충남 아산, 탄소섬유 - 전북 전주, 공작기계 - 경남 창원

○ 7차 경쟁력위에 이어 이번에도 **글로벌 차량용반도체 수급위기**를 **극복**하기 위한 ①**고신뢰성 MCU**, ②**자율주행용 AI칩** 협력을 선정함

○ 상생모델은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①5G 주파수 필터, ②양극재 장비, ③친환경 타이어 윤활액, ④화재예방 장비 등 4건으로, **중소기업의 역량 강화** 등 **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**이 될 것으로 **기대**

□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에 대해 향후 5**년간 약 700억원 규모의** R&D와 **최대 1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정책금융**을 지원할 예정이며, **인력·인프라, 규제특례*** 등 **맞춤형 패키지 지원**도 제공할 계획임

* 공공연 인력파견 지원, 특별연장근로 인가, 환경규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등

【별 첨】 1.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
2.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임경섭 사무관(☎ 044-203-49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